

CBS가 만든  성경 채널
알림바이블 대본집

Ep.081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

(누가복음 1:5~80,
마태복음 1:18~24)



여러분, 오늘부터는 신약성경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가 유대 백성들에게 구세주가
오실 거라고 예언한지 어느덧 400년 넘게 흘렀어요.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던 유다는 강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로마는 '헤롯'이라는 왕을 임명해서
유다를 다스리게 했어요.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 중에
‘사가랴’라는 나이 많은 제사장이 있었어요.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흠잡을 데라곤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부부였죠.

다만 부부에게는 자식이 없었는데, 이미 두 사람 모두
나이가 너무 많아져서
아이를 가진다는 건 생각도 할 수 없었죠.
그런데 하루는, 사가랴가 성전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사가랴는 천사를 보고 깜짝 놀라 두려워했죠.

**“사가랴, 두려워 말거라.
너의 아내 엘리사벳은 곧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여라.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세주를 맞이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킬 사람이라.”**

**“하, 하지만 그건 말이 안 됩니다...
다 늙은 저희가 어찌 아이를 가진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 가브리엘이다.
네가 주님의 기쁜 소식을 의심하였으니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너는 말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한참 후, 성전 밖으로 나온 사가라는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어요.
집에 돌아가 엘리사벳에게, 손동작과 글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전해주었죠.

“세상에나... 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기적과도 같은 소식이었지만 엘리사벳은 한 치의 의심도 없이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그리고 얼마 후, 그녀는 정말로 뱃속에 아이를 가지게 되었죠.

엘리사벳이 임신한 후 여섯째 달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이번에는 ‘나사렛’ 마을로 보내셨어요.

그곳에는 엘리사벳의 친척인 ‘마리아’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죠.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 말했어요.

“마리아, 기뻐하거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네가 곧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거라.
그 아이는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며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려 온, 왕 중의 왕이란다.”

마리아는 천사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엘리사벳과 달리
마리아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여자였거든요.
그저 ‘요셉’이라는 목수와 결혼을 약속했을 뿐이었죠.

“그렇지만 저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서는 하지 못하실 일이 없단다.
네 친척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지만
몇 달 후면 아이를 낳을 것이다.
마리아야,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감싸 주시고,
네가 낳은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거란다.”

그러자 마리아가 말했어요.

**“예, 저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마리아는 나사렛 마을을 떠나서
친척 엘리사벳의 집을 방문했어요.

**“헤세요~? 엘리사벳, 제가 왔어요!
마리아가 왔습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인사를 하던 그때
엘리사벳의 뱃속에서
아이가 힘차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마치 뛰노는 것처럼 말이죠!
그 순간 엘리사벳은 감격해서 마리아에게 말했죠.

“오, 마리아! 네가 정말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았구나!
방금 너의 인사하는 목소리가 들릴 때
내 뱃속의 아이가 무척이나 기뻐했단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네가 틀림없이 구세주의 어머니가 되겠구나...!”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세 달이 더 지나고

“응애! 응애!!”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집에 아기가 태어났어요!
이웃 사람들이 모두 모여 부부를 축하해주었죠.

**“축하해요, 엘리사벳!
아이가 잘 생기기도 했지!”**

**“이거 경사구만! 아이 이름은 아버지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고 해야겠지?”**

그러자 엘리사벳이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아니예요!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지어야 해요.”**

**“요한이요? 아니 이 집안에 그런 이름을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소?
이보게 사가랴, 자네 생각은 어떤가?”**

**말을 못하는 사가랴는 조용히 필기도구를
가져다 달라고 손짓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아기의 이름을 적었죠.
‘요. 한.’ 엘리사벳이 말한 그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이웃들이 모두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던 그때
사가랴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더니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죠!**

**“오... 오... 주님, 다시 말할 수 있게
해주어 감사합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가라는 큰 소리라 하나님을 찬양했고
마을 사람들은 이 아기가 특별한 아기임을
알 수 있었어요.**

**한편, 아이가 생긴 마리아는
한 가지 큰 걱정이 있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제 약혼자 요셉을
곧 우물가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에게 생긴 일을 요셉이 이해해줄 수 있을까요?
요셉이 부디 저를 믿고
또 상처받지 않게 해 주세요...’**

**마리아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요셉에게
모든 일을 털어놓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해 주셔서 이런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요셉, 나를 믿죠...?”**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요셉은 고개를 푹 떨구었어요.
그는 친절하고 너그러운 사람이었지만
마리아의 말은 보통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믿기 힘든 말이었죠.

요셉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마리아가 나를 속인 것 같지만
사랑하는 마리아에게 큰 창피를 줄 순 없어.
오늘은 일단 헤어지고 조용히 결혼 약속을 취소해야겠어.’

그런데 요셉이 집에 돌아와 괴로운 마음으로
잠이 들었을 때, 꿈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요셉아, 마리아가 아이를 가진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란다.
그 아이의 이름은 예수이며
그가 이 땅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것란다.”

꿈에서 갠 요셉은, 이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마리아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가지게 되었구나!
마리아를 의심하다니 내가 어리석었어.
하루빨리 마리아와 결혼식을 올리고
그녀와 아기를 잘 보살펴 줘야겠어...!”**

그렇게 요셉과 마리아는 부부가 되었어요.
그리고 한 달, 한 달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을 구원할 아기 예수의 탄생이 가까워졌답니다!